

『홍당무』 번역의 과거와 현재 - 아동본 번역의 쟁점들*

박 선 희
(고려대)

1. 서론

한국 독자들에게 흔히 동화로 알려져 있는 『홍당무 *Poil de Carotte*』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작가 쥘 르나르 Jules Renard의 쓰라린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자전적인 소설로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작가가 이 소설을 동화로 쓴 것은 아니다.¹⁾ 르나르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어머니에 대한 복수와 어른들에게 학대받는 아동들을 옹호하려는 목적에서 이 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103).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번역학회-건국대 동화와번역 연구소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어른을 대상으로 쓴 소설이 동화로 더 많이 수용된 사례는 『어린 왕자』, 『걸리버 여행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신데렐라』 등 많은 고전 아동 명작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져 있다. 또한 문학 작품 속에 늘상 천사와 같은 이미지로 미화되던 고전적인 아동의 이미지에 반발하여 어른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현실적인 소년의 성장기를 그리려 하였다(Renard 1970: 635-46). 이러한 이유로 이 소설의 일부 이야기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어머니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을 학살하고 질투심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이 등장한다.

위와 같은 이야기 소재를 포함하는 『홍당무』의 성인본과 아동본 번역 고찰 결과, 아동본 번역에서는 아동 독자의 정서 보호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의미 순화와 단순화, 구문 생략 등의 변조가 발견되었다(박선희 2012 참고). 그런데 번역문의 특성은 대상 독자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번역본의 출판 시기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시적 관점의 성인본과 아동본 비교가 아닌,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본의 출판 시기에 따른 번역 양식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당무』 완역본을 대상으로 과거본과 현대본의 번역 양식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성인본과 아동본²⁾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홍당무』 번역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 번역 양식의 변화는 무엇이며, 달라지지 않은 공통적 특성은 무엇인지 찾고, 발견되는 번역 양식의 통시적 변화가 성인 독자와 아동 독자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특성인지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발견된 번역 양식의 통시적 변화나 공통 특성이 아동 독자의 정서 보호와 아동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2. 아동문학과 번역연구의 쟁점들

푸우르티넨(Puurtinen 1924; 성승은 2005: 76 재인용)에 의하면, 아동 도서

- 2) 아동문학 번역 고찰시 아동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승은(2010)은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위 연령층’으로 구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를 ‘상위연령층’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아동본’은 성승은의 구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출판된 ‘상위연령층’ 번역본을 의미한다. 한편 ‘성인본’은 출판 계획에서부터 아동을 특정하지 않은 번역본들로 중고생과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번역본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번역본의 겉 텍스트들과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정보, 인터넷 서점 정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 번째, 아동 도서는 아동과 어른이라는 이중 독자를 가지며, 두 번째, 그 시대와 문화의 교육 정책, 이데올로기, 종교, 윤리 등에 영향을 받고, 세 번째, 아동의 특성과 읽기, 이해 능력,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여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도서의 특성은 아동문학이 아동을 위한 문학이지만 어른이 제작하고 집필하며 선택하는 문학(신지선 2009: 155)이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읽는 문학이지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른인 부모이고, 아동문학을 제작하는 출판사는 그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고객들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다.

어른들은 아동문학을 통해서 아동들이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므로 아동문학에는 어른들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며 어른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은 통제되고 제거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아동문학에는 “건드려서는 안될, 혹은 건드리지 않아도 좋을 영역” 이른바 ‘금기’가 존재한다(스나다 히로시 2009: 194). 그 예로 일본의 아동문학은 죽음, 고독, 가련함, 성과 관련된 주제를 금기로 여겨왔고(스나다 히로시 2009), 미국의 아동문학은 성에 대한 주제, 폭력성, 인종 차별, 성 차별적 이야기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우학 2010).

반면에 아동문학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소아 계층의 아동문학을 연구한 오티넨(Oittinen 2000: 48-50)은 어른들이 동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할 때 어른들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여 아동들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면들을 부적절하다고 비난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은 작은 체구의 어른이 아니라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마법 세계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티넨은 아동들이 놀라거나 충격 받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목적에 의해서 아동들의 이야기를 자주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어른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동문학 번역에도 적용된다. 스톨제(2003: 209)는 언어적 단순화, 이야기 축소, 과도한 설명 등이 흔히 나타나는 아동 번역의 특성을 거론하면서, 아동들에게 난해함이나, 이국성, 도전, 미스테리가 사라진 단순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아동문학의 주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티넨이나 스톨제의

경우 환상세계, 마법, 미스터리 등 가벼운 금기를 다루는 반면에 아동 문학 주제의 금기를 말하는 스나다 히로시나 이우학은 죽음, 폭력, 성 등 무거운 금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아동 문학의 주제 제한과 관련된 이 문제는 대상 독자인 아동의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 독자의 정서 보호 차원에서 살핀다면, 성승은(2010)이 말하는 소위 ‘하위 연령층’의 이제 막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굳이 죽음, 폭력과 같은 삶의 어두운 면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상위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이런 문제는 그들이 가정, 학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인지하고 경험하는 문제들이므로, 그들에게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주제 제한보다는 주제를 풀어나가는 이야기 방식이 더 중요하다. 전래동화에 죽음이나 살인과 같은 이야기 소재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아동들이 잔인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단순하게 알릴뿐 그 과정의 묘사가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는 잔인한 장면의 전개를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살핀다면, 금기로 인식되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작가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폭력이나 인종 차별적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아동들에게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작된 아동문학은 작가가 처음부터 아동 독자를 의식하고 쓰기 때문에 이야기 주제나 서술 방식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것의 번역은 큰 문제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당무』와 같이 아동 학대, 폭력, 동물 학살 등과 같은 무거운 금기를 일부 포함하고 상세히 묘사하는 어른 대상 소설을 동화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어른들의 이데올로기 적용이 불가피해 보이며 아동들의 정서 보호와 교육 목적을 위해 성인본 번역과 다른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아동문학 번역은 독자에 따라서 번역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키포스(Skopos)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신지선 2005b). 스키포스 이론에서는 어른에 비해서 언어적으로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가독성 있는 번역이 되어야하고 번역시 아동문학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문의 단순화, 짧은 문

장과 쉬운 어휘로 번역하기, 문화적 요소의 자국화나 이국화, 역주나 설명첨가 등의 변조에 긍정적이고, 교육적 목적에서 아동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의 생략이나 어휘나 구문 의미의 순화 등의 변조에도 긍정적이다(성승은 2005, 2010; 신지선 2006, 2009; 오미형 2007; 박선희 2012 참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도 『홍당무』 번역의 과거본과 현대본 번역 비교를 통해서 번역 양식의 변화가 『홍당무』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완화하여 아동의 정서 보호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3. 『홍당무』 탄생배경과 특성

『홍당무 *Poil de Carotte*』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1890년에서 1894년 사이 여러 잡지에 나뉘어 틈틈히 발표되다가 1902년 플라마리옹Flammarion 출판사에서 최종판이 출간되었다. 이 최종판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총 49개의 짝막한 이야기들과 페릭스 발로통Félix Vallotton의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 작품의 원제 ‘*Poil de Carotte*’는 주인공 소년의 붉은 머리와 주근깨에 유래한 별명으로서 당근에 난 털을 의미하나, 이 소설의 첫 번째 한국어 번역인 1958년 민중서관 판본에서 번역본의 제목을 『홍당무』로 출판하였고, 이후 다른 번역자들의 번역본들도 동일한 제목을 채택함으로써 이 소설의 한국어 제목은 『홍당무』로 굳어지게 되었다.³⁾

작가 쥘 르나르로 하여금 이 소설을 쓰게 한 그의 어머니는 작품에서 주인공 소년의 어머니인 ‘르픽 부인Madame Lepic’으로 등장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홍당무는 ‘프랑스와 르픽Frainçois Lepic’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49개 이

3) 1958년 민중서관 판본의 번역자인 김봉구는 역자 후기에서 원제가 *Poil de Carotte*이므로 ‘당근털’이라고 번역해야 하나, 이것이 작품 내내 등장하는 주인공의 별명이므로 ‘당근털’이라는 별명은 어색하므로 ‘홍당무’로 번역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봉구가 해당 판본에 삽입한 삽화를 일본어 번역본에서 빌려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홍당무’라는 번역은 이 소설의 일본어 번역 제목인 ‘にんじん(당근)’에 착안한 번역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이 ‘당근’이 아닌 ‘홍당무’로 번역됨으로써 이 소설이 더욱 동화라는 인상을 준다.

야기 전체에서 소년은 ‘홍당무’라는 별명으로만 불린다. 성격이 괴팍하고 심술궂은 어머니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늘상 일에 바빠 무관심한 아버지, 약삭빠른 형과 소심한 누나가 그의 가족으로 어머니의 비웃음과 심술은 언제나 막내인 홍당무에게 향한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에 익숙해진 홍당무는 무덤덤한 무반응으로 대처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꾀를 부리지만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뺨을 맞곤 한다. 그는 가족 안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연약한 피해자이지만, 그 자신이 어린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는 학대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아동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시 프랑스 부르주아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려 하였고, 문학 작품 속에 흔히 등장하는 천사 같은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밋고 불결하고 잔혹한 결점투성이의 현실적인 소년의 모습을 그리려 하였다. 이런 주인공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자연과 함께하는 소년의 성장기가 해학적인 유머와 아이러니, 완곡어법, 현재시제로 기술된 간결하고 밀집력 있는 문체,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관찰력으로 묘사되어 있다(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2010) 참고).

그런데 이 소설이 작가에 의해서 동화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실제 동화로 더 많이 수용된 것은 작품 자체에 동화로 출판하기에 적합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에서 동화에 적합한 요소들을 찾는다면 우선 아동 독자와 동일 세대인 약 12세의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독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소년이 주인공이므로 아동들이 쉽게 이야기에 동화될 수 있다. 소설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각 이야기마다 삽화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본 번역을 위해서 번역자가 일부러 변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의 짧은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짧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즐거리를 달리하여 구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반복, 대구, 대조, 완곡, 반어법 등의 수사적인 문체로 기술된 서술자의 어조가 해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의 형식이 동화에 적합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야기 소재 자체는 아동들의 정서 보호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학대하고⁴⁾

4) 어머니에 의해서 아동이 학대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야기가 동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콩쥐와 팥쥐』, 『장화홍련』 등은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한 사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는 가정 밖에서 작은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자신이 학대자가 되며 질투심에 휩싸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서술자의 관찰력을 돋보이게 하는 상세한 묘사는 이러한 장면을 더욱더 잔인하게 느끼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홍당무』의 아동 번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가 담고 있는 잔인성을 없애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 출판된 『홍당무』 아동본의 편집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아동본들이 이야기 소재의 부적합성을 형태적으로 해결한 방식을 살펴본 후 번역의 내용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정된 번역본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 범위를 밝히고자 한다.

4. 아동 번역본 비교검토

이야기의 형식은 동화에 적합하나 이야기의 소재는 적합하지 않은 이 소설을 아동본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출판 계획 자체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원본의 변조가 필요하다. 『홍당무』 아동본들의 경우, 프랑스어 원본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번역본의 전체 목차를 검토하여 49개 이야기의 완역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동본 출판을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동들에게 부적합한 요소들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당무』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이야기마다 줄거리를 달리하는 짧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이야기의 삭제가 쉬운 편이다.

실제로 많은 아동본들이 이야기의 일부만 추려서 편집하는 ‘부분역본’ 방식을 취하였고, 동일 역자의 번역이라도 출판사 판본에 따라서 49개의 이야기를 모두 실은 ‘완역본’인 경우와 일부 이야기만 골라서 실은 ‘부분역본’들로 편집

받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설명하기 위한 코드로 악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결국 이 동화들은 아동들에게 ‘계모는 항상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는 데 일조하였다. 『홍당무』는 이러한 ‘권선징악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없으며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홍당무』 윤미역 역 2004: 286-7). 단지 작가는 성장기 소년이 겪는 삶의 행복과 불행, 좌절, 체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부분역본’들 중에는 『홍당무』이외의 다른 동화와 합본하여 출판하기 위한 지면상의 제약이 ‘부분역본’의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부분역본’들마다 선택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며, 모든 ‘부분역본’들이 ‘안전한’ 이야기만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분역본’들 중, 동아출판사(1979)의 『홍당무』에는 엄마가 홍당무에게 오줌을 먹이는 이야기인 ‘좀 뭐한 애기지만’과 홍당무가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이는 ‘두더지’와 ‘고양이’, 사랑받지 못하는 질투심에 맨 손으로 유리창을 깨며 선생님에 반항하는 ‘붉은 뺨’ 등,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아동 동화의 소재로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제외되었다. 반면에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출판한 웅진출판(1994)의 『홍당무』는 위의 네 이야기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아동본들 중 49개의 이야기가 모두 완역된 판본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판된 번역본들이었다. 출판 계획 자체가 ‘완역’을 목표로 한 판본들은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제외할 수 있는 ‘부분역본’들에 비해서 아동들에게 이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모두 안고 출판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이야기의 삭제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역본’에 비해서 이야기의 삭제를 선택하지 않은 ‘완역본’들은 보다 소극적인 방식으로 변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완역된 아동본들의 경우, 문장이나 어휘 차원의 표현 순화, 부적절한 구문의 생략, 아동 어휘 등으로 변조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박선희 2012 참고).

5. 『홍당무』 번역의 통시적 고찰

5.1 검토 대상 번역본과 범위

번역 양식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판된 『홍당무』 완역본 중 다른 선행번역자의 번역본과 유사도가 크지 않으면서 원문으로부터의 직접 번역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프랑스어를 전공한 번역자의 판본을 검토 대상 번역본으로 선정하였다. 동일 지점의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판본마다 선택한 이야기가 다른 ‘부분역본’들은 검토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성인본 5종과 아동본 7종이 선정되었다.

- 성인본 5종: 왕문사(1974), 문예출판사(1984), 하서출판사(1995), 좋은생각(2004), 인디북(2008).
- 아동본 7종: 육영사(1974), 금성출판사(1986), 비룡소(2003), 주니어파랑새(2004), 동쪽나라(2005), 계몽사/종로학원(2005), 교원(2007).

검토할 번역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는 49개의 이야기들 중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모두 가진 현실적인 소년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각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는 홍당무의 모습을 ‘상처받는 불행한 소년’, ‘심술궂고 잔인한 소년’, ‘행복하고 즐거운 소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주제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홍당무』의 전체 이야기들 중 동화로서 부적합한 소재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아래 표에서 ‘상처받는 불행한 소년’과 ‘심술궂고 잔인한 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주제별 분류	검토 대상 이야기들
상처받는 불행한 소년	좀 뭇한 얘기지만(Sauf votre respect), 요강(Le pot), 마지막 말(Le mot de la fin)
심술궂고 잔인한 소년	두더지(La taupe), 고양이(Le chat), 붉은 뺨(Les joues rouges)
행복하고 즐거운 소년	편지 교환(Lettres choisies), 대부(Parrain), 마틸드(Mathilde)

위의 표에 제시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원문과 12종의 번역본 검토 결과, 과거본과 현대본에서 동사 시제와 관련된 서술 방식과 홍당무의 어조에서 번역 양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 소설의 수사 문체들 중 하나인 완곡어법은 과거본과 현대본 모두 명시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 세 가지 번역 문제를 아동 독자의 정서 보호와 교육 목적과 연관 지어 검토하기로 한다.

5.2 서술 방식

소설의 서술은 서술자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과거 시제로 기술된다. 그러나 『홍당무』는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의도적으로 현재시제를 사용하였다.⁵⁾ 서술 시점과 사건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시간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과거시제에 비해서 서술 시점과 사건 시점이 일치하는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보다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장면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번역본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결과, 1970년대 출판된 과거 번역본들은 성인본과 아동본 모두 원문의 시제와 동일한 현재시제로 번역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조금씩 과거시제로 번역된 번역본들이 생겨나더니 2000년대에 이르면 과거시제 번역이 『홍당무』 번역의 대세를 이룬다. 지면 상 모든 번역본들의 예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개의 판본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⁶⁾ 아래의 예문은 홍당무가 두더지를 죽이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Poil de Carotte trouve dans son chemin une taupe, noire comme un ramonat. Quand il a bien joué avec, il se décide à la tuer. Il la lance en l'air plusieurs fois, adroitement, afin qu'elle puisse retomber sur une pierre. D'abord, tout va bien et rondement. Déjà la taupe s'est brisé les pattes, fendu la tête, cassé le dos, et elle semble n'avoir pas la vie dure.

<왕문74> 홍당무는 길을 가다가 땅두더지란 놈을 발견한다. 연통 소켓군처럼 새까만 놈이다. 실컷 가지고 장난한 끝에 그만 죽여 버리기로 작정했다. 몇 번이고 그놈을 공중으로 내던진다. 바로 돌맹이 위에 떨어지도록 맵싸 있게 던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잘돼 나간다. 이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등이 으스러졌다. 그리 질긴 목숨도 아닌 것 같다.

5) 『홍당무』의 일부 이야기들 중 ‘좀 뭐한 애기지만Sauf votre respect’, ‘붉은 뺨Les joues rouges’ 등은 잡지에 실린 초기 원고에서는 과거시제로 서술되었지만, 잡지 연재 이후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출판된 단행본에서는 현재시제로 수정되었다 (Renard 1970: 1004, 1012).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소설을 현재시제로 기술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6) 번역본명은 <출판사명 앞 두 글자+출판년도 뒤 두 글자>로 구성하였고, 아동본은 번역본명 밑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육영74> 홍당무는 길바닥에서 굴뚝 청소부처럼 새까만 두더지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실컷 가지고 놀다가 죽여 버리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공중으로 던집니다. 바로 돌멩이 위에 떨어지도록 잘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술술 잘 되어 나갑니다. 두더지는 이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등이 터져 예상 외로 간단히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

<좋은04> 홍당무는 길을 가다가 굴뚝 청소부처럼 새까만 두더지 한 마리를 발견한다. 그는 그걸 실컷 가지고 놀다가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두더지가 돌 위에 떨어지도록 공중으로 여러 번 숨씨 좋게 던진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되어간다. 두더지는 이미 발이 으스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등이 부러졌다. 그다지 생명력이 질긴 것 같지는 않다.

<계몽05> 홍당무는 길가에서 두더지 한 마리를 발견한다. 굴뚝 청소부처럼 온통 새까만 두더지다. 한참 데리고 놀다가 죽여 버리기로 결심한다. 공중으로 똑바로 던져 올렸다가 돌위에 부딪히며 떨어지게 한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되어 별 실수가 없었다. 두더지는 벌써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등이 으스러져 곧 죽어 줄 것 같다.

<동쪽05> 홍당무는 길을 가다가 굴뚝 청소부처럼 새까만 두더지를 발견했다. 홍당무는 두더지를 한참 가지고 놀더니, 죽여 버리기로 결심했다. 홍당무는 두더지가 돌 위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몇 번이나 공중으로 던졌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빠르게 잘되었다. 두더지는 이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등이 부서졌다. 곧 죽을 것 같았다.

예문에서와 같이 과거 번역본인 성인본 <왕문74>와 아동본 <육영74>는 원문과 동일하게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특히 다른 번역본들과 달리 ‘~입니다’체로 번역된 <육영74>에서는 아동독자들에게 친근한 어조로 다가가기 위한 번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에 출간된 현대 판본 7종 중, 성인본인 <좋은04>와 아동본인 <계몽05>를 제외하고 나머지 5종은 <동쪽05>처럼 공통적으로 과거시제로 기술되었다. 현재시제로 번역본 두 번역본 중, 아동본인 <계몽05>는 동일번역자의 초판본인 성인본 고려원(1987) 판본에서부터 현재시제로 번역되었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였기 때문에 현대본이 현재시제 번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판본들 중 성인본인 <좋은04>만이 다른 현대 번역본들과 다르게 현재시제 기술을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시제로 서술된 원문의 특성에 주목한 번역자가 작가의 의도를 번역

본에 반영하기 위해서 원문과 동일한 시제로 번역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시제에서는 원문과 동일한 현재시제로 번역되다가 왜 현대본으로 올수록 과거시제 번역이 늘어난 것일까? 이것은 번역문의 서술이 과거 시제로 기술되는 소설 서술의 일반적 특성에 맞추어 번역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시제로 번역된 <좋은04>와 과거시제로 번역된 <동쪽05>를 비교하여 읽어 보면, <좋은04>의 ‘발견한다’, ‘마음먹는다’, ‘던진다’의 현재시제 서술보다는 <동쪽05>의 ‘발견했다’, ‘결심했다’, ‘던졌다’의 과거시제 서술이 더 매끄럽게 읽힌다. 이것은 소설의 서술방식으로 낯선 현재시제 보다는 과거시제 서술에 더 익숙하므로 번역문이 매끄럽게 읽히는 것이다. 따라서 매끄럽게 읽히는 가독성 있는 텍스트를 선호하는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번역 양식이 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시제에서 과거시제로의 서술 방식의 변화를 아동본 차원에서 검토하면, 서술시점과 사건시점이 일치하는 현재시제 판본에 비해서 서술시점과 사건시점이 차이나는 과거시제 판본은 사건과 거리감을 유지한다. 반면에 현재시제는 사건과 동일한 시점에서 서술되므로 독자들을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집중하게 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과 같이 홍당무가 두더지나 고양이를 죽이는 과정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묘사한 에피소드에서는 과거시제 번역이 현재시제 번역보다 잔인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시제로 인해서 이야기는 더 매끄럽게 읽히고 잔인함은 덜 느껴지므로 과거시제로의 변조는 아동 독자들의 가독성 향상과 정서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번역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3 아동 어조

다음으로 어른들에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홍당무의 어조 번역을 통해서 아동 어조 번역의 시대적인 변화를 검토해보자. 프랑스어 2인칭 단수대명사는 ‘Tu’와 ‘Vous’ 두 종류가 있으며 한국어 인칭대명사 사용과 차이난다. ‘Vous’는 격식성을 나타내며 화자들 간의 상하관계 및 거리감을 표시하고 ‘Tu’는 비격식성을 나타내며 화자들 간의 수평관계와 친밀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홍당무』에서 부모와 자녀는 인칭대명사 ‘Tu’를 서로 사용하며, 선생님과 학생은 ‘Vous’를

서로 사용한다.

『홍당무』의 과거본과 현대본에 나타난 홍당무의 어조를 비교한 결과, 성인본과 아동본 구분 없이 인칭대명사의 번역은 한국어의 문화·규범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홍당무의 어조 번역은 편지글인 문어와 대화인 구어에서 다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번역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홍당무의 문어 어조를 비교해보자.

Mon cher papa,

J'apprends que tu dois aller à Paris. Je partage la joie que tu auras en visitant la capitale que je voudrais connaître et où je serai de cœur avec toi.

<왕문74> 부주전 상서,

아버지께서 파리에 가신다는 소식, 우선 서울을 방문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저도 나누어 누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서울, 가지 못하는 서울에 마음이나마 아버지를 따르겠나이다.

<육영74> 사랑하는 아빠,

근근 아빠가 파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구경하고 싶은 곳입니다. 기꺼이 아빠를 모시면서, 즐거운 구경을 아빠와 함께 나누게 해주시면 합니다.

:

<비룡03>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파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를 방문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꼭 가 보고 싶은 곳이지만 갈 수 없으니 마음만 아빠와 함께 갈게요.

<좋은04>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파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곳을 아빠가 방문하신다니,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나마 아빠와 그곳에 함께 있을 거예요.

<교원07>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파리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빠가 파리를 방문하면서 느끼게 될 기쁨을 나도 함께 느끼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 곳이지만 마음만 아빠와 함께 갈게.

홍당무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원문의 홍당무는 아버지에게 ‘tu’를 사

용하는 비격식성을 보이는 반면에 <교원07>을 제외한 모든 번역본들의 홍당무는 성인본과 아동본 모두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격식성을 보인다. 그런데 과거본인 <왕문74>와 <육영74>는 현대본보다 더 격식적인 ‘입니다’체를 구사하는 반면에 현대로 올수록 좀 더 친밀한 ‘어요’체의 높임말로 변했다. 현대본 중에는 <교원07>의 홍당무만이 귀여운 아동 어조의 예사말을 사용한다. 한편 편지글에서 아버지에게 각듯이 높임말을 사용하는 과거본의 홍당무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편지글과 다르게 예사말을 사용한다. 홍당무가 아버지에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검토해보자.

POIL DE CAROTTE : Mon cher papa, j'ai longtemps hésité, mais il faut en finir. Je l'avoue : je n'aime plus maman.

<왕문74> 홍당무 빠빠, 난 정말 오래오래 망서리고 있었어. 치만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까놓고 말함 - 난 이제 엄마 사랑하지 않아.

<육영74> 홍당무—아빠, 난 이제까지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분명히 해 뒤야겠어.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엄마가 싫어진 거야.

:

<비룡03> 홍당무 아빠, 저는 정말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은04> 홍당무 - 아빠,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망설이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계몽05> 홍당무 : 아빠, 오랫동안 망설여 왔지만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요. 사실 까놓고 말하면, 난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원07> 홍당무 아빠, 한참 망설였는데 이제 끝을 내겠어. 고백할게. 난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과거본의 경우, 성인본과 아동본 모두 홍당무는 아버지에게 예사말을 하는 반면에 현대에 올수록 홍당무는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한다. 그 결과 과거본에서는 아동의 문어(높임말)와 구어(예사말) 사용에서 격식성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현대본에서는 문어와 구어가 동일하게 ‘어요’체의 높임말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과거본의 경우, 한국의 아동들이 부모에게 보통 예사말로 대화하다가도 편지 쓸 때는 높임말로 기술하는 격식성을 보이는 특성이 한국어 번역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현대본에서는 아동은 어른에게 높임말을 해야 한

다는 가치 개념이 반영되어 공손한 아동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한편 <교원07>은 위의 편지글 사례에서와 동일하게 아버지에게 예사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홍당무에게 공손한 아동의 이미지보다는 귀여운 아동의 이미지를 부여하기로 한 번역 계획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계몽05>의 홍당무는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하면서도 ‘까놓고 말하면’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다. 이 문제는 해당 번역자의 초판본인 고려원 1987년 판본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POIL DE CAROTTE : Mon cher papa, j'ai longtemps hésité, mais il faut en finir. Je l'avoue : je n'aime plus maman.

:

POIL DE CAROTTE : Ce serait long. D'ailleurs, ne t'aperçois-tu de rien ?

<고려원1987> 홍당무: 아빠, 오랫동안 망설여 왔었지만 이젠 끝장을 내야겠어. 사실 까놓고 말하면 나 이젠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

홍당무: 하자면 길어. 근데, 아빠는 조금도 눈치 못 채고 있었어?

<계몽05> 홍당무 : 아빠, 오랫동안 망설여 왔지만 이젠 끝장을 내야겠어요. 사실 까놓고 말하면, 난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

홍당무 : 하자면 길어. 근데 아빠는 조금도 눈치 못 채고 있었어요?

성인본인 <고려원1987>과 아동본인 <계몽05>를 비교해보면, 위와 같이 과거본 홍당무의 예사말 어조가 현대본에서는 높임말 어조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본인 1987년 판본의 경우, 실제 아동들도 거친 어조로 말하기도 하므로 홍당무가 ‘까놓고 말하면’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문의 홍당무가 천사같이 착하기만 한 아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생들의 논술 교재로 출판된 아동본 <계몽05>는 상황이 다르다. <계몽05>의 높임말이 아동 독자들에게 어른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한다는 교

7) 원문의 ‘Je l'avoue’를 번역한 이 구절은 <왕문74>의 번역 ‘까놓고 말함’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육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까놓고 말하면’과 같은 비속어는 아동의 언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 번역자의 선행 성인본을 아동본으로 바꾸어 출판할 경우,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아버지와 ‘Tu’를 사용하는 원문의 홍당무는 학교 선생님에게는 ‘Vous’를 사용한다. ‘Vous’의 사용은 프랑스어의 언어 규범상 홍당무가 선생님에게 반항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도 변함이 없다. 한국어 번역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면, 과거본의 홍당무는 성인본과 아동본 모두 거친 어린 ‘깡패’의 이미지로 재현되는데 반해서, 현대본을수록 홍당무는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에게 높임말로 항의한다. 이 때문에 그의 행동은 거치나 어조는 공손하므로 현대본의 홍당무는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귀여운 아동의 이미지로 재현되어 과거본의 홍당무보다는 거친 이미지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과거본과 현대본의 차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Dame ! crie Poil de Carotte, tandis qu’avec entrain, il casse d’un second coup de poing un autre carreau, pourquoi que vous l’embrassiez et que vous ne m’embrassiez pas, moi ? »

Et il ajoute, se barbouillant la figure avec le sang qui coule de sa main coupée :

« Moi aussi, j’ai des joues rouges, quand j’en veux ! »

<왕문74> "헛!" 와지끈 소리와 함께 또 한번 주먹을 들어 유리 창을 부시며 고향친다.

"왜 무엇이 어쩐다구, 그 새끼는 키스해 주고 난 안하는 거냐, 나는 응?"

그리고는 베어진 손에서 흐르는 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마디 더 던진다.

"나두 할라구만 함, 이렇게 붉은 뺨이다. 어떠냐!"

<육영74> 「뭐라고!」 하고 홍당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힘껏, 탄 유리를 또 깨뜨립니다.

「왜 그놈한테 키스하고, 나한테 키스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응?」

그러고는, 그는 베인 손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문지르며 첨가합니다.

「나도, 하려고만 함, 뺨이 이렇게 붉어진단 말야」

:

<비룡03> 홍당무가 미친 듯이 주먹으로 또 다른 유리창을 깨며 외쳤다.

“물론이예요! 선생님은 왜 마르소한테만 키스해 주고 나한테는 안 해 줬죠?”

그러고는 유리에 베여 피가 흐르는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며 덧붙였다.

“봐요. 내 뺨도 이렇게 마음대로 빨개질 수 있단 말이예요!”

<교원07> 홍당무가 다른 창을 두들겨 깨면서 소리쳤다.

“제길! 왜 재한테는 뽀뽀해 주고, 나에게는 뽀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리에 찢겨 피가 흐르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덧붙였다.

“나도, 내가 원하면 뺨을 빨갱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인디08> “그야 물론이죠! 어째서 재한테만 뽀뽀를 해주고 나한테 안 해준 거예요? 왜 나는 안 해 준 거냐구요?” 홍당무는 또 다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어 보았다.

그리고는 베인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얼굴에 묻히며 이렇게 말했다.

“나두 작정만 하면, 이렇게 붉은 뺨을 가질 수 있다가구요!”

기숙학교 생활을 하는 홍당무는 기숙사 학습 감독 선생님이 옆 침대의 마르스에게 밤마다 찾아와 얘기하며 키스하는 것을 질투한다. 질투심에 눈이 먼 홍당무는 교장선생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일러바치고 이 때문에 선생님은 해고를 당하게 된다. 위의 예문은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에게 홍당무가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고 손에 베인 피를 얼굴에 묻히며 반항하는 장면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질투심에 횡포를 부리는 순간에도 원문의 홍당무는 출발어의 언어 규범 상 ‘Vous’를 사용하는 격식성을 보이지만, 과거본 <왕문74>, <육영74>의 홍당무는 해당 장면에 걸맞게 선생님에게 거친 언어를 구사한다. 반면에 현대로 올수록 홍당무는 폭력성을 보이는 순간에도 선생님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예의를 잊지 않는다. 특히 <교원07>과 <인디08>에서는 ‘키스’가 아닌 ‘뽀뽀’라는 아동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홍당무의 어조가 아이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번역본에 나타나는 홍당무의 존댓말은 과거본들에 비해서 아동의 폭력적 이미지를 완화하는데 일조하며 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함을 가르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번역 방식이다.

5.4 완곡어법

『홍당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아동 독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은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홍당무를 응징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수프에

오줌을 타서 먹이는 장면일 것이다.⁸⁾ 홍당무의 ‘오줌 사건’과 관련하여 르나르는 완곡어법을 많이 사용하였다.⁹⁾ 주로 대명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이 ‘오줌’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맥락에 의해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오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완곡어법은 역겹고 불쾌한 장면을 가림으로써 텍스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 장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번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인 의미의 명시화가 일어났다.

완곡어법이 많이 사용된 아래 예문에서는 원문에서 대명사를 활용해 완곡어법으로 가린 사건을 대명사 앞에 ‘(오줌을) 싸다’라는 동사를 추가하여 수식함으로써 홍당무가 오줌이 든 수프를 먹었다는 사실을 명시화하였다. 완곡어법의 명시화는 시대와 독자 구분 없이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므로 아동본들 위주로 검토할 것이다.

« Ah ! ma petite salissure, tu en as mangé, tu en as mangé, et de la tienne encore, de celle d’hier.

<육영74> 「에이, 더러워. 넌 그걸 쳐먹었어. 진짜로 먹었던 말야. 제 걸 말야. 간 밤에 싼 걸」

<금성86> “이런 녀석 봤나! 오줌이야. 넌 오줌을 먹었어. 바로 네 거지. 그것도 간밤에 싼 거란다.”

:

<하서95> “자! 넌 그걸 먹었던 말이야. 어젯밤 바로 그거다.”

<비룡03> “웁, 더러워. 넌 그걸 먹은 거야. 그걸 먹었다고. 네가 어젯밤에 싼 그 거 말이다.”

<주니04> “이런! 더러운 녀석, 너는 그걸 먹었어, 그걸 먹었다니까. 어제 네가 싼 것 말이야.”

<동쪽05> “아우, 더러워라. 너는 그걸 먹었어. 어제 네가 싼 걸 먹었다고.”

8) 비룡소(2003)의 아동독자들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을 검토하면 이 장면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http://www.bir.co.kr/site/pages/book_info.php?bid=4914075&a=a/,
<http://book.naver.com/bookdb/review.nhn?bid=166718>)

9) 오줌 에피소드와 관련된 완곡어법 번역의 또 다른 예는 박선희(2012: 129-130) 참고 가능.

<계몽05> “아이고, 이 더러운 녀석아! 그걸 치먹었어! 그것도 제 것을, 제가 어젯 밤에 싼 것을!”

<교원07> “아, 지저분한 우리 막내아들, 그걸 먹었구나. 그걸 먹었어. 어젯밤 네가 싼 걸 말이야.”

위의 구문은 수프에 오줌을 타서 먹인 엄마가 홍당무에게 그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다. 원문에서는 'en(그것)', 'la tienne(네 것)', 'celle(그것)'의 대명사를 사용하여 홍당무가 먹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tu en as mangé(넌 그걸 먹었어)’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를 응징하고자 하는 엄마의 어조를 드러낸다. 검토한 번역본들 중 성인본 <하서95>만이 완곡어법이 제대로 재현되었다. 하지만 <하서95>도 엄마의 응징이 담긴 반복이 재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원문의 완곡어법 대명사들을 대부분의 번역에서 동일하게 대명사 ‘그걸’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번역자들도 해당 구문의 완곡어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구문 안에 완곡어법이 네 번이나 나타나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에서 마지막 부분에 ‘싸다’라는 동사가 추가됨으로써 홍당무가 먹은 것이 오줌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므로 완곡어법의 재현이 완벽하지 않다. 불쾌하고 역겨운 장면에 충격 받을 아동 독자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면의 완곡한 처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홍당무』 번역의 통시적 연구에 의하면, 원문의 현재시제가 과거본에서는 원문과 동일하게 현재시제로 번역되었으나 현대본들은 과거시제로 번역된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어른에 대한 아동의 어조 번역은, 특히 아동의 구어 어조에서, 과거본과 현대본이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본에서는 아동이 대화 상황에서 어른에게 예사말을 사용하지만 현대본으로 올수록 존대말을 사용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과 아동 어조의 변화는 과거본과 현대본 사이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차이로 동시대의 성인

본과 아동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상 독자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번역본들이 당대에 통용되는 번역 양식들에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원문의 완곡어법은 과거본과 현대본 모두 번역본에서 명시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아동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홍당무』의 현대 번역에 나타나는 과거시제 서술과 아동의 높임말 사용은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원문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아동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아동의 정서 보호 및 문학을 통해 올바른 언어와 예절 교육을 수행하려는 아동문학의 번역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번역본에 나타나는 완곡어법의 명시화는 반대로 원문에서 감추고자 한 잔인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홍당무』는 이야기의 형식은 동화에 적합하지만 이야기의 소재는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 학대, 폭력, 동물 학살과 같은 이 소설의 일부 이야기에 포함된 부적합한 소재를 삭제하지 않고 완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완화하는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아동 독자를 고려한 이러한 번역 전략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홍당무』는 아동 독자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홍당무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가족에게 사랑받는 자신의 환경에 안도하고, 상처받는 다른 아동들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연 (2008) 「외국 아동문학 번역의 현주소」, 『창비어린이』 6(3): 26-35.
 김명균 (2009) 「아동문학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 연구 -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 『신영어영문학』 42: 1-25.
 김윤희 (2010) 「아동문학 번역텍스트 분석을 통한 아동개념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선희 (2012) 「아동 독자를 고려한 번역 전략 고찰 - 『홍당무』 성인본과 아동본의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4(1) (출판예정).

- 성승은 (2005)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 연구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중심으로 -」,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1): 69-98.
- (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신지선 (2005a)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연구』 6(1): 65-98.
- (2005b) 「아동문학 번역시 스킴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 6(2): 125-40.
- (2006) 「『걸리버 여행기』번역에 나타난 교육적 목적의 변환 고찰」, 『동화와 번역』 11: 171-95.
- (2009)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 -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141-59.
- 안미라 (2009) 「대상 독자층에 따른 번역 전략의 차이- 그림형제 동화 번역 비교 분석」, 『통번역학연구』 13(1): 107-25.
- 오미형 (2007) 「한국아동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 - 『고양이 학교』 영역본 사례 연구 -」, 『동화와 번역』 13: 187-211.
- 이우학 (2010) 「미국 아동문학과 검열」, 『동화와 번역』 20: 307-23.
- 스나다 히로시 (2009) 「아동문학에서의 금기」, 『창비어린이』 7(3): 194-216.
-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 (2010) 「『홍당무』 번역평가 보고서」(미출간).
- Oittinen, Riitta (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O'Sullivan, Emer (2003) 'Narratology meets Translation Studies, or The Voice of the Translator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48(1-2): 197-207.
- Puurtinen, Tiina (1994) 'Dynamic style as a parameter of acceptability in translated children's book', in M. Snell-Hornby (Ed.),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83-90.
- Stolze, Radegundis (2003) 'Translating for Children - World View or Pedagogics?' *Meta*, 48(1-2): 208-221.

원본 및 번역본

- 르나아르, 김봉구 옮김 (1974) 『홍당무』, 서울: 왕문사.
- 쥘 르나르, 유한성 옮김 (1974) 『홍당무』, 소년세계문학전집 10, 서울: 육영사.
- 쥘 르나르, 이가림 옮김 (1984) 『홍당무』, 서울: 문예출판사.
- 르나르, 홍승완 옮김 (1986) 『홍당무』, 주니어세계명작 43, 서울: 금성출판사.
- 쥘르 르나르, 민희식 옮김 (1987) 『홍당무』, 북아프리에 1, 서울: 고려원.
- 쥘 르나르, 김장섭 옮김 (1995) 『홍당무』, 하서명작선 41, 서울: 하서출판사.
- 쥘 르나르, 심지원 옮김 (2003) 『홍당무』, 서울: 비룡소.
- 쥘 르나르, 박노경 옮김 (2004) 『홍당무』, 이삭줍기주니어, 파주: 주니어파랑새.
- 쥘 르나르, 윤미연 옮김 (2004) 『홍당무』, 서울: 좋은생각사람들.
- 쥘 르나르, 김소라 옮김 (2005) 『홍당무』, 주니어 퍼펙트 세계명작, 서울: 동쪽
나라.
- 르나르, 민희식 옮김 (2005) 『홍당무』, 실전독서논술작품선 43, 서울: 계몽사/중
로학원.
- 쥘 르나르, 고정아 옮김 (2007) 『홍당무』, 위즈퍼니세계명작, 서울: 교원.
- 쥘 르나르, 연속진 옮김 (2008) 『홍당무』, 서울: 인디북.
- Renard, Jules (1970) *Poil de Carotte*, in *Œuvres*, Paris: Gallimard.

[Abstract]

**A Diachronic Examination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Poil de Carotte*:
Issues Regarding Translations for Children**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Poil de Carotte (*Hongdangmou* in Korean), generally known as a children's story, is a French autobiographical novel of the writer, Jules Renard, based on childhood memories of being unloved by his mother. The focus of some episodes of this novel is not only on the mother who abuses her son, but also on the violent child who cruelly kills small animals. These episodes in *Poil de Carotte*, call for a caveat as to their suitability for a children's story. If one considers that one purpose of children's literature is the protection of children's emotions and if propriety in language teaching for child readers must be observed, then some translation strategies must be employed to relieve the cruelty and violence of the original text to make *Poil de Carotte* an appropriate novel for childre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iachrony of the translation methods in the Korean versions of *Poil de Carotte* by comparing the past and present versions published from the 1970s until the 2000s. We investigated if this diachrony was in accordance with the features appropriate for the target readers by comparing adult and child versions. Finally, we examined its readability and its suitability for child readers,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tense of narration, the tone of the character portrayal, and the clarity of euphemisms in the translated versions.

▶ Key Words: Translations for Children, Children's Literature, Diachronic Study, Readability, Child Readers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체번역,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